

美國國民의 法秩序 生活樣式과 行動準據

李 溫 竹*

〈目 次〉	
I. 머리말	1. 미국적 경험의 종교적 배경
II. 미국적 생활양식과 가치지향의 특징	2. 사상적 근원
III. 미국적 사상의 원류와 배경	IV. 역사적 경험의 실제와 전망 - 결론에 대신하여

I. 머리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니고 있는 인상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법을 잘 지키고 질서의식이 투철하며 공중도덕에 철저하다. 예를들어, 자동차나 인적이 아주 뜸한 새벽 거리에서 적신호 앞에 차를 멈추고 서 있는 광경이라든가 네거리 사방에 〈우선 멈춤〉신호가 있는 십자로에서 각방면에서 오는 자동차들이 한 대씩 차례로 진행을 하면서 순조로운 통행을 하고 있는 모습은

* 서울대 교수, 사회학

미국 각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혹은, 인기 있는 영화를 상영하는 개봉관 극장앞에나 유명한 선수들이 벌이는 운동 경기장 앞에서 끝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새치기 하나 없이 기다리는 미국 사람들의 참을성은 보는 이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게 한다. 은행이나 공항의 카운터에 가면, 〈들어가는 곳〉을 따로 지정해 놓고 통로처럼 줄을 쳐 놓은 데를 따라 차례를 기다리면 여러 창구 중 먼저 끝난 직원이 다음 사람을 불러서 일을 처리해 주는 제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대로 상에서나 공원과 같은 공공 장소에서 아무 데서나 돌아 서서 천연덕스럽게 볼 일을 보는 사람은 흔치 않으며(실지로 10년 가까운 미국 생활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차에서 음료수 깡통이나 휴지 조각이 창밖으로 날으는 사례도 극히 드물다. 식당이라든가 대합실 같은 곳에서 어린이들이 소리 지르며 함부로 뛰어 다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부모나 보호자가 철저히 방지하려고 애쓰는 모습도 자주 눈에 뜨인다. 엄연히 〈금연〉이라 표시된 비행기 좌석이나 공공 시설에서 담배를 피워 무는 〈배짱〉은 전혀 볼 수 없으며, 그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누군가 옆에서 말리는 용감한 시민이 있지 결코 방관하지 않는다.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수는 있어도 담배 값이나 급행료를 챙기려는 의도에서 그러지는 않으며, 교통 경찰이 규정을 위반한 시민으로부터 금품을 걷어 들이는 행위는 아직 들은 바 없다. 국회의원이라도 음주 운전중에 단속이 되면 일개월씩 안전 교육을 받으러 경찰청에 다녀야 한다. 대통령도 법을 어겼든가 법집행을 방해하는 일에 연루가 되어 탄핵 직전에 사임해야 했던 사례가 바로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미국 사람들은 〈거짓말 장이〉(liar)라는 말이 가장 심한 욕이요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을

또한 제일 싫어 한다. 조금이라도 남의 사생활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얼굴을 붉히면서 항의한다. 사회 질서를 교란시키고 공중도덕에 위배되는 행동을 목격하면 고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웬만한 일이면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문서로써 계약하기를 좋아하고, 계약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가차 없이 법정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런 보기들이 말하자면 미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스테레오타입>(고정관념)에 해당한다 하겠다. 그 말은 미국 사람들이라 해도 법을 어기고 질서를 흐트르며 공중도덕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말을 함축한다. 어느 사회든지 모든 법과 규칙과 사회규범이 완벽하게 지켜지는 것은 현실이 아니다. 규범이란 언제나 일부는 위반하는 것이 인간의 사회 생활의 실존적인 모습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미국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보면 비교적 질서의식이 강하고 공중도덕심이 내재화되어 투철하며 준법 정신이 생활화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질서의식과 공중도덕심과 준법정신에 비교하게 되면 그러한 <미국인관>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일상의 삶의 세계에서 법을 잘 따르고 질서를 잘 지키며 공중도덕에 충실한 행위를 나타내는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설명을 찾아 보려고 한다. 미국에도 엄청난 범법 행위가 날마다 발생하고 길가에는 쓰레기가 흩날리며 제멋대로 큰길을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고 속도 위반을 하며 질주하는 자동차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을 감안하면서, 그러나 우리와 비교할 때, 또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에서도, 미국인의 일반적 행위 유형이 준법성이 강하고 질서의식이 뚜렷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것이 어디에서 연유하는 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탐구를 함에 있어서 매우 당혹스러운 점은 특별히 미국인들의

준법행위나 질서의식을 주제로 삼고 연구를 한 사례들이 거의 없고 이를 직접 다루는 문서나 서적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사회학적 연구들은 주로 거시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고, 법률 서적들은 미시적으로 법률적인 측면들만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관찰에 대한 일정한 이론적 해명 같은 것이 주제가 된 연구서라든가 학문적인 업적이 드물다는 어려움에 봉착한다.

어쩌면, 미국 사람들의 일상적 수준의 준법성은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미국의 사회학자나 법률학자들이 일부러 그 현상 자체를 따로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러한 자료의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는 그와 같은 여건의 제약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원천들에 의거하여 이 문제에 접근할 수 밖에 없다.

II. 미국적 생활양식과 가치지향의 특징

한 사회의 성원들의 생활양식을 특징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경제 생활, 여가 오락, 종교 생활, 사회적 상호작용, 정치 행태 등등 갖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겠지만, 법질서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흥미 있는 관찰과 만나게 된다. 예를들어, 한 법률학 교수의 저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이는데, 법률적 차원에서 본 미국 사회의 특성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므로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¹⁾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에는 법이 너무 많이 널려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 소송, 기타 법적 절차에 너무 많이 개입하

1) L. M. Friedman, *American Law*, New York: W. W. Norton & Co., 1984, p. 280.

준법행위나 질서의식을 주제로 삼고 연구를 한 사례들이 거의 없고 이를 직접 다루는 문서나 서적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사회학적 연구들은 주로 거시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고, 법률 서적들은 미시적으로 법률적인 측면들만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관찰에 대한 일정한 이론적 해명 같은 것이 주제가 된 연구서라든가 학문적인 업적이 드물다는 어려움에 봉착한다.

어쩌면, 미국 사람들의 일상적 수준의 준법성은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미국의 사회학자나 법률학자들이 일부러 그 현상 자체를 따로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러한 자료의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는 그와 같은 여건의 제약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원천들에 의거하여 이 문제에 접근할 수 밖에 없다.

II. 미국적 생활양식과 가치지향의 특징

한 사회의 성원들의 생활양식을 특징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경제 생활, 여가 오락, 종교 생활, 사회적 상호작용, 정치 행태 등등 갖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겠지만, 법질서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흥미 있는 관찰과 만나게 된다. 예를들어, 한 법률학 교수의 저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이는데, 법률적 차원에서 본 미국 사회의 특성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므로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¹⁾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에는 법이 너무 많이 널려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 소송, 기타 법적 절차에 너무 많이 개입하

1) L. M. Friedman, *American Law*, New York: W. W. Norton & Co., 1984, p. 280.

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미국 사회는 다른 어떤 나라나 미국 자체의 과거 어떤 시기보다도 더 심하게 법의 그물에 걸려 있는 듯이 보인다. 우리는 법의 유사(流砂:폭폭 빠지는 모래수렁)속으로 점점 깊숙하게 빠져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전국에 독자망을 가진 한 잡지에서는 “소송으로 짐철된 사회”를 애통해 하면서 “끝없는 소송으로 신되는 망가지고 창의성은 위축되고 있다”고 외친일이 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미국의 법률 체계가 성장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의에 대한 헌신 물입의 상징으로서 오히려 금지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한다... 가령, 식품가게에 가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상의 행동조차도 거창한 법의 상부구조를 전제하는 판국이다. 이 사회에서는 보통 일이든 비상한 일이든 모두 법이 지배한다. 놀라운 정도로, 보통 날의 뉴스란 알고 보면 결국은 법에 대한 뉴스인 셈이다...

미국에 법률가, 즉 변호사들이 너무 많다는 말은 흔히 듣는다. 그래서 <앰블런스 쫘무니만 쫘아 다니는 변호사>라는 농담까지 생겼다. 그래야 사고에 관련된 소송을 재빨리 맡을 수 있다는 풍자다. 일부 통계에 의하면, 1847년 뉴저지주의 법령과 규정을 다 합쳐도 약 1천 페이지 정도의 책으로 엮을 수 있었는데, 1980년대 초에는 법전과 규정집을 가지고 책장 하나를 다 채울 만큼 늘어났다고 한다. 그만큼 인구도 증가하였지만, 생활양식에도 변화가 왔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특히, 현대에 오면 올수록 기술(technology) 발달의 속도가 가속화됨으로써 새로운 기술이 실용화됨과 동시에 이를 규제하는 법규가 필요하게 되는 변화를 겪었으므로 법률과 규정의 폭증이 일어났다.²⁾

한 마디로, 미국은 법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거의 자연스럽게 만사를 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말은 각자 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포한다고 하겠다. 가령, 19세기 미국의 형행제도와 민주주의를 관찰하고자 방문했던 프랑스 귀족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이미 당시 미국에서는 법률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정치사회적 쟁점이 없음을 간파하였고, 현대에는 그동안 여러 형태로 존재하던 <권위>에

2) *Ibid.*, p. 281.

대한 신뢰가 점차 약화되면서, 그 자리를 법이 채우는 결과를 가져왔다.³⁾

예컨대, 미국 독립 이전에는 관리들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였고 왕에 대한 개인적인 유대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미합중국의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한다. 그에게 있어 〈왕〉은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라 법률적인 문서인 〈헌법〉이라는 법적 상징이다. 미국에서는 결정을 내리고 정부를 운영하는 절차와 과정, 즉 법에 대한 헌신몰입(commitment)이 충성의 원형이다. 미국사람들은 〈게임의 규칙〉을 존중하고 거기에 복종한다는 공통된 이해를 지니고 살아 간다고 할 수 있다.

이 처럼 법이 생활의 중심에 있고 삶의 세계에 편재하는 미국 사회의 가치지향을 살펴 보기 위하여, 저명한 사회학자인 코넬대학의 윌리엄스(Robin M. Williams, Jr.)교수가 열거한 주요 가치지향을 소개한다.⁴⁾

- 성취와 성공 (Achievement and Success)
- 활동과 일 (Activity and Work)
- 도덕적 지향 (Moral Orientation)
- 인도주의적 원규 (Humanitarian Mores)
- 효율성과 실용주의 (Efficiency and Practicality)
- 진보 (Progress)
- 물질적 안녕 (Material Comfort)
- 평 등 (Equality)
- 외적 동조주의 (External Conformity)
- 국민주의 - 애국심 (Nationalism - Patriotism)
- 민주주의 (Democracy)
- 개인의 인격 (Individual Personality)
- 인종주의 및 이와 관련된 집단우월주의 (Racism and Related Group-Superiority Themes)

3) *Ibid.*, pp. 274-275.

4) R. M. Williams, Jr., *American Society: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3rd Ed. New York: Alfred A. Knopf, 1970, pp. 452-500.

[표 1] 미국인과 일본인의 차이 비교

미 국 인	일 본 인
이익사회(Gesellschaft)	공동사회(Gemeinschaft)
개인주의(Individualism)	집단주의-맥락주의(Groupism-contextualism)
수평적 관계 (Horizontality)	수직적관계 (Vertticality)
평등주의(Egalitarianism)	위계서열(Hierarchy)
계약(Contract)	“친족유대” (“Kintract”)
“사생활 존중”(“Private”)	“공공성 존중” (“Public”)
“죄의식”(“Guilt”)	“수치, 체면” (“Shame”)
도시적-세계적(Urban-cosmopolitan)	농촌적-폐쇄적(Rural-exclusive)
권리(Rights)	의무(Duties)
독립성, 내면지향성(Independence; inner-directed)	의존성, 타인지향성(Dependence; other-directed)
보편성(Universality)	특수성-특이성(Particularity-uniqueness)
이질성(Heterogeneity)	동질성(Homogeneity)
절대주의(Absolutism)	상대주의(Relativism)
불화(Rupture)	조화, 지속성(Harmony, continuity)
인위적 고안(Artifice)	자연(Nature)
추상성(Abstraction)	경험주의, 구체성(Phenomenalism, Concreteness)
희사/능동(Donative/active)	수용/반동(Receptive/reactive)
개방적(Open)	폐쇄적(Closed)

출처 : N. Dale, *The Myth of Japanese Uniqueness*, New York:St. Martin's Press, 1986, pp. 44, 51; S. M. Lipset, "Pacific Divide: American Exceptionalism - Japanese Uniqueness," mimeo paper presented to a conference of the Research Committee on Comparative Sociology of the I. S. A. at Kurashiki, Japan, July 5, 1992, p. 25에서 재인용.

[표 1]에서 일본 사람과 대비했을 때 드러나는 미국인의 특질들을 나열한 보기를 들어 보면, 위의 가치지향 항목과 중첩이 있지만 그 나름으로 흥미 있는 관찰을 읽을 수가 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또 하나의 비교를 제시한다. [표 2]는 역사적으로 서양에서 귀족, 농민과 노동자 및 자본가/시민의 세가지 계급을 특징짓는 덕목들을 요약하고 있다. 그 중, 시민의 항목들이 말하자면 미국의 중산층 사람들의 특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계급에 따른 덕목 비교

귀족	농민/노동자	시민/중산층
이교도	기독교도	세속적
아킬레스(대표적 인물)	성 프란시스코	벤자민 프랭클린
존재 양식의 금지	봉사의 금지	활동의 금지
명예	의무	정직, 성실성
강직성	연대성	신뢰성
용기	인내	모험
기지	익살	해학(유머)
정중한 예의	공손	경의
교양	겸손	겸양
아량	자비심	배려
정의	공정	책임
선견지명	지혜	분별
온건	소박	검약
사랑	자선	애정
품위	위엄	침착
주관적	객관적	주객관

출처 : D. McCloskey, "Bourgeois Blues," *Reason*, (May 1993), p. 48.

물론, 이와 같은 일반적 가치지향이나 특질 또는 덕목들이 전부 미국 사회와 미국 사람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또한 이 모두가 미국 사람들의 법질서 의식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다만, 그 중 우리의 직접적인 목적에 적합성이 높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미국인들의 행동양식과 생활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성취와 성공이라는 가치는 그에 필요한 활동과 일을 전제하고, 그러자면 경쟁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최소한의 보편성, 평등주의, 세속적인 합리성과 효율성 및 실용주의 가치가 직접, 간접으로 관련을 갖게 된다. 그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정직, 성실성과 책임성, 그리고 검약과 같은 덕목이 유용하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의 행동을 규제하는 보편적인 게임의 규칙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절차의 문제이며 법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법이 절차의 문제라면, 절차를 가장 중시하는 정치사회 체제는 바로 민주주의이다. 특히 신생국 미국에서는 권력의 배분과 갈등의 해소를 해결하는 〈절차〉에 대한 합의가 민주주의적 원리의 주요소로 떠올랐다. 여기에는 왕과 같이 어떤 권위의 위치에 있는 개인의 결정에 의한 지배 대신에 〈비인격화된 법률에 의한 지배〉가 핵심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에 있어서나 사회 생활 일반에 있어서 사람이 자의적으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른바 〈인치주의〉(人治主義) 대신에 법이 좌우하는 법치주의 원리가 우세하다. 그리고 민주주의 이념에는 개인의 인간적 존엄과 도덕적 자율성을 인정하는 윤리적 개인주의가 깃들여 있다. 이는 미국의 인권선언과 헌법 전문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개념으로 규정되고 기회 균등의 평등 이념으로

실현되었다.⁵⁾

이러한 문맥에서 특히 강조되는 미국 사회의 가치지향은 〈개인의 인격〉이라는 것이다. 뒤르켐(Emile Durkheim)은 이것을 두고 서구 문명에 있어서 〈개인적 인격의 숭배〉(the cult of individual personality)라고까지 비유하였다. 이 사상은 개인의 인격의 특유한 개발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따라서 인간으로서 개인의 완전무결한 전체성(integrity)의 침해나 손상을 가장 혐오한다. 하나의 인격으로서 개인은 독립성, 자율성, 책임성, 자아 존중, 자기 규제, 자발성, 자아 지향성, 자기 방어, 타인의 존중 등을 함양하도록 기대되는 존재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은 모든 사회문화적 통제로부터 해방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생물적 존재가 아니라, 윤리적이며, 결정 행사를 하고, 독자적인 사회적 인격이라는 점이 강조된다.⁶⁾

그런데, 특히 미국 사회에서 개인주의에 대한 강조는 단순히 이념이나 법률이나 공식적 행동 유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인 가정과 무의식적 관행에서도 편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단적으로 표현한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⁷⁾

개인주의 가치는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인다... 갓난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개인화되어야 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는 독립성을 가르쳐야 한다. 실상, 우리는 그 아기가 스스로 인식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독립된 정체를

5) Williams, *op. cit.* p. 493; 및 W. H. Sullivan, "The American Experience: Opening Remarks," pp. 6-20 in J. Hoyt(ed). *The American Experience: Seventh Annual Seminar for Student Leaders, USIS, 1975.*

6) Williams, *op. cit.*, pp. 495-497.

7) Dorothy Lee, "Are Basic Needs Ultimat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XLIII, 3(July 1948), pp. 393-394, Williams, *op. cit.*, p. 497 재인용.

지닌다는 가정을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프라이버시의 필요성은 절대절명의 가치다. 심지어 주정부의 복지 기관이나 연방정부의 노동부 같은 공공 기구가 이를 인정할 정도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기본 가치에서 연유하며 그 가치를 표현하는 체계의 일부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의 질서의식이 전적으로 법적인 생활양식이나 민주적인 체제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거기에는 일상적인 규칙 준수의 관념이 깃들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규칙 준종의 이면에는 강력한 〈도덕적 지향〉이 작용한다.

앞서 소개한 드 트로빌을 필두로 하여 미국을 관찰한 유럽의 대가들이 하나 같이 인상적으로 보았던 것은 “미국인들이 세상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바라 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미국인은 항상 〈옳고 그름, 선과 악, 윤리성과 비윤리성〉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사물을 판단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를 뮈르달(Gunnar Myrdal)은 미국인의 〈도덕적 과민 반응〉(moral overstrain)이라고 까지 표현하였다.⁸⁾

앞서 일본인과 미국인의 특징을 비교하는 [표 1]에서도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인류학자 베네딕트(Ruth Benedict)가 일본 문화를 서양 문화와 비교할 때 전자를 〈체면의 문화〉(shame culture)라 한 반면에 서양의 것은 〈죄의식의 문화〉(guilt culture)로 특징지었듯이, 미국 사람들에게 〈양심〉이라는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하여, 라스웰(H. D. Lasswell)같은 학자는 지나치게 엄격히 양심을 강조한 결과 불안이 조장되는 것이 미국 중류층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가정할 수 있는데, 이와같은 불안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덕주의적으로 엄격하게 법을 만들어 시행하려 시도하게 된다

8) Williams, *op. cit.*, pp. 461-462.

고 지적하였다.⁹⁾

그와 같은 도덕적 지향의 바탕에는 미국인의 종교성이 깔려 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다. 우리의 제도들은 〈하느님〉의 존재를 전제로 설립된 것들이다.” 이 말은 미합중국 대법원 판사였던 더글러스(William O. Douglas)가 한 말이다. 법률학 교수도 “수백만, 수천만의 미국인들은 깊은 종교성을 지니며, 그들이 다니는 교회의 말을 충실하게 따른다”고 할 정도로 종교적이다.¹⁰⁾

미국 사회의 도덕적, 정신적 가치의 문화적 기원은 유태교와 기독교에 있음은 잘 아는 일이다. 자유민주 사회의 법과 관습과 일반적 기풍은, 개인의 양도 할 수 없는 권리가 어떤 정치적 주장보다도 우선한다는 사상, 다시 말해서, 개인의 내면 생활이 국가가 제도화한 어떤 가치보다도 우월하다는 관념에 기초하고 있고, 이러한 미국의 정치적 이념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정당화하고 증진시키는 원천이 바로 종교다. 그뿐 아니라, 어떤 공동체든지 최소한 성원들 각자가 사심 없음, 참을성과 관용, 온건한 절제, 확고부동한 신념, 꾸준함 등의 덕목을 과시하여야 자유로운 사회로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종교는 이러한 민주적 시민 사회의 덕목들을 제공하고 뒷받침해 줌으로써 미국사회로 하여금 자유로운 민주 사회로 존속,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미국이 법을 중시하는 만큼 실지로는 국민들의 일상적으로 관습화된 도덕적 반응에 더 크게 의존하는 것도 이러한 종교의 덕택이다.¹¹⁾

다시 언급하거니와, 물론, 미국 사람들이라고 모두가 민주 시민으로서 완벽

9) R. Benedict,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Boston: Houghton Mifflin, 1946; H. D. Lasswell, *World Politics and Personal Insecurity*, New York: McGraw-Hill, 1935, p. 225 Williams, *op. cit.*, p. 462에서 재인용.

10) Friedman, *op. cit.*, p. 274.

11) W. Clancey et al., *Religion and American Society: A Statement of Principles*, Santa Barbara, CA: Center for the Study of Democratic Institutions, 1961. pp. 29-34.

하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아니다. 그럼에도 법질서를 생활화하는 것은 일반화된 관행으로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지배적 가치지향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윌리엄스교수가 말한 <외적 동조주의>다. 역시 드 토르빌의 관찰에 의하면, 미국은 이미 19세기에 <다수의 횡포>를 경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경고를 받아 마땅할 정도로 다수의 규범과 관행이 온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한 세기 후, 20세기 초에, 또 다른 프랑스 지성인인 시그프리트(Siegfried)도 미국이란 언어, 예절, 주택, 의복, 여가 활동 및 정치적 생각 등에서 대단한 동질성을 보이는 나라로 특징지었다. 이런 미국관은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미국관과는 상치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적 특이성을 인정하는 삶의 영역은 경제, 기술 분야 같은 데로 한정되고, 역시 도덕성의 문제로 오면 문화는 동조성을 조장하는 성향을 지닌다.¹²⁾ 따라서, 미국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규칙을 준수하고 질서를 존중하는 관행도 이런 뜻에서 일종의 동조주의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 사람들은 남이 하는대로 하지 않고 별나게 행동하는 것을 꺼리는 편이라는 말이고, 법을 지키고 질서를 따르는 행위도 결국은 이 처럼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지 않으려는 문화적 압력에 의한 충동의 소산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러한 동조성 역시 공연히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생기는 번거로움을 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실질적이라는 미국인들의 효율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성향이나 가치지향과 다시 만나게 된다.

요약해서, 미국인들의 준법 생활과 질서있는 행동은 미국 사회의 법치주의, 민주주의 등 절차를 중시하는 이념과 개인의 존엄 및 권리를 인정하는 사상에서 연유하며, 동시에 효율성과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경쟁의 규칙을

12) Williams, *op. cit.*, pp. 484-485.

지키려는 성향도 미국인들의 도덕성과 종교적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사람들의 유난한 동조주의도 여기에 한 몫을 한다. 그러면, 어떤 역사적, 사상적 배경에서 미국 사회는 이와 같은 가치지향과 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Ⅲ. 미국적 사상의 원류와 배경

미국 사회와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할 때 항상 부각되는 점은 그것이 이민에 의하여 새로이 만들어지고 계속 생성되어 온 나라라는 사실이다. 이민의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요소가 도입되지만, 이민 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각자가 이미 오랜 전통을 지닌 문화를 등에 업고 이민해 온다. 따라서, 미국에는 초기부터 자기가 떠나 온 사회의 문화를 가지고 도착한 사람들이 전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역사가 반복되어 오고 있다. 그러는 사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일종의 문화적 실험을 하게 되고 그 결과야말로 아주 특이한〈미국적 경험〉으로 결정화된다.

이런점에서 미국의 역사는 매우 예외적이라는 평판을 받고도 남는다. 가령, 립셋(S. M. Lipset)같은 학자는 아예 〈미국적 예외성〉(American Exceptionalism)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다.¹³⁾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적 경험의 뿌리는 우선 유럽의 종교적 배경과 사상적 흐름에서 찾아지고,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미국 대륙에 정착하여 삶을 영위하는 구체적 역사적 축적들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을

13) Sullivan, *op. cit.*, pp. 6-10; 및 S. M. Lipset, "Pacific Divide: American Exceptionalism - Japanese Uniqueness," Mimeo paper presented to a conference of the Research Committee on Comparative Sociology of the I. S. A. at Kurashiki, Japan, July 5, 1992.

지키려는 성향도 미국인들의 도덕성과 종교적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사람들의 유난한 동조주의도 여기에 한 몫을 한다. 그러면, 어떤 역사적, 사상적 배경에서 미국 사회는 이와 같은 가치지향과 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Ⅲ. 미국적 사상의 원류와 배경

미국 사회와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할 때 항상 부각되는 점은 그것이 이민에 의하여 새로이 만들어지고 계속 생성되어 온 나라라는 사실이다. 이민의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요소가 도입되지만, 이민 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각자가 이미 오랜 전통을 지닌 문화를 등에 업고 이민해 온다. 따라서, 미국에는 초기부터 자기가 떠나 온 사회의 문화를 가지고 도착한 사람들이 전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역사가 반복되어 오고 있다. 그러는 사이 자연히 사람들은 일종의 문화적 실험을 하게 되고 그 결과야말로 아주 특이한〈미국적 경험〉으로 결정화된다.

이런점에서 미국의 역사는 매우 예외적이라는 평판을 받고도 남는다. 가령, 립세트(S. M. Lipset)같은 학자는 아예 〈미국적 예외성〉(American Exceptionalism)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다.¹³⁾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적 경험의 뿌리는 우선 유럽의 종교적 배경과 사상적 흐름에서 찾아지고,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미국 대륙에 정착하여 삶을 영위하는 구체적 역사적 축적들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을

13) Sullivan, *op. cit.*, pp. 6-10; 및 S. M. Lipset, "Pacific Divide: American Exceptionalism - Japanese Uniqueness," Mimeo paper presented to a conference of the Research Committee on Comparative Sociology of the I. S. A. at Kurashiki, Japan, July 5, 1992.

하나씩 차례로 검토해 본다.

1. 미국적 경험의 종교적 배경

미국 사람들이 무척 종교적이라는 점은 이미 밝혔지만, 그들의 종교적 뿌리는 역시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이 우세하다는데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유대교-기독교적 전통 자체가 변질되었고, 근대화과정에서는 전세계적인 수준에서 세속화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앞서 지적한 것 처럼 미국 사람들은 유난히도 종교적이다. 또한, 지속적인 이민의 유입에 의하여 국가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기독교 개신교 이외에 카톨릭교를 위시하여 기독교 아닌 각종 종교가 혼재하는 다원주의 사회가 자리잡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종교적 배경 중에서도 특히 초기의 영국식민지 미국에 최초로 정착한 이민들을 대표하는 청교도들의 종교적 성향이 미국적 경험의 종교적 색채를 일단 규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¹⁴⁾

청교도적 윤리는 주로 서양에서 일에 대한 헌신몰입적 태도와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정신의 생성을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는 요소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도덕적 가치지향 일반의 전통적 기초가 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청교도란 원래 유럽에서는 칼빈주의로 알려진 개신교 교파를 지칭하는데, 영국에서 청교도의 이름을 얻고 그들이 종교적 박해를 피해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의 청교도 문화를 심은 사람들이다. 이들의 교리는 신의 예

14) 미국 청교도 종교의 배경과 의미에 관해서는, J. McKay, B. D. Hill, and J. Buckler, *A History of Western Society, 3rd ed., vol. 1,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7, pp. 443-526.*

하나씩 차례로 검토해 본다.

1. 미국적 경험의 종교적 배경

미국 사람들이 무척 종교적이라는 점은 이미 밝혔지만, 그들의 종교적 뿌리는 역시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이 우세하다는데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유대교-기독교적 전통 자체가 변질되었고, 근대화과정에서는 전세계적인 수준에서 세속화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앞서 지적한 것 처럼 미국 사람들은 유난히도 종교적이다. 또한, 지속적인 이민의 유입에 의하여 국가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기독교 개신교 이외에 카톨릭교를 위시하여 기독교 아닌 각종 종교가 혼재하는 다원주의 사회가 자리잡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종교적 배경 중에서도 특히 초기의 영국식민지 미국에 최초로 정착한 이민들을 대표하는 청교도들의 종교적 성향이 미국적 경험의 종교적 색채를 일단 규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¹⁴⁾

청교도적 윤리는 주로 서양에서 일에 대한 헌신몰입적 태도와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정신의 생성을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는 요소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도덕적 가치지향 일반의 전통적 기초가 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청교도란 원래 유럽에서는 칼빈주의로 알려진 개신교 교파를 지칭하는데, 영국에서 청교도의 이름을 얻고 그들이 종교적 박해를 피해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의 청교도 문화를 심은 사람들이다. 이들의 교리는 신의 예

14) 미국 청교도 종교의 배경과 의미에 관해서는, J. McKay, B. D. Hill, and J. Buckler, *A History of Western Society, 3rd ed., vol. 1,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7, pp. 443-526.*

정에 의하여 구원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소위 예정설에 기초하며, 그러므로 신의 선택을 받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길은 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살아 성공하는 길 밖에 없음을 가르쳤다. 칼빈주의적 청교도 윤리는 통상 <세속적 금욕주의>라 이르는데, 일상 생활에서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생활>을 금하였다. 음주, 도박, 방탕, 사치스러운 의복, 가무 등을 금하고, 대신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하며, 저축하고, 현재의 쾌락을 지연시키며, 정직하고 공정하며, 신용을 지키고, 시간을 아끼며, 가난이란 도덕적 부패의 표상이라 가르쳤다.

그뿐 아니라, 미국의 독립 혁명을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종교적 전통의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하는데, 역시 이 때도 청교도적 믿음이 핵심이었다. 그들은 성서란 완전무결한 복음이며, 그러한 성서의 가르침은 국가의 법보다도 높은 법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정치적 권위가 성서적인 관점에서 정의롭지 못할 때는 도전하고 저항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영국의 폭정에 항거하는 미국 식민지의 독립을 쟁취한 일을 정당화한 것이다.¹⁵⁾

여기서 우리는 미국인들의 법질서 의식이 초기의 종교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짐작하게 된다. 두 말할 나위도 없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와 같은 순수한 청교도적 개신교 윤리가 원형대로 남아 현재까지 미국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 배경이 있다는 사실은 크고 작은 사회적 규범의 정당화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아래에 인용하는 구절이 이를 잘 대변해 준다.¹⁶⁾

15) M. Perry et al., *Western Civilization: Ideas, Politics and Society*,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9, p. 412.

16) H. J. Laski, *The American Democracy*, New York: Viking, 1948, p. 27 Williams, *op. cit.*, p. 462에서 재인용.

처음에는 신정주의적(theocratic)원리로 시작한 것이 중국에는 공리주의와 쉽사리 구별할 수 없는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는다.… 부지런히 일하고, 질서 있는 생활을 영위하며, 정직성과 공정한 거래로 명성을 얻고, 자신의 재산을 쓸모 없는데 거침없이 낭비하지 않으며, 한 번 착수한 일은 끝까지 목적 달성을 하겠다는 결심을 지니는 등, 말하자면 미국의 기본적 전통이 형성될 무렵의 종교는 이런 종류의 윤리로 탈바꿈을 하였다.

2. 사상적 근원

사람에 따라서는 미국적 경험의 사상적, 철학적 근원을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나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러한 먼 뿌리는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 사상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았음을 부인할 필요가 없다. 18세기에 미국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시도함에 있어서 그 정신적 바탕을 구상하고 새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일을 하던 제퍼슨(Thomas Jefferson)이나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같은 당대의 엘리트 지식인과 정치가들은 단연코 계몽주의 사상에 물들었었다. 여러 계몽주의 철학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미국 정치사회 사상에서 두드러진 이름은 록크(John Locke), 몽테스키외(Baron de la Brede et de Montesquieu) 및 루소(Jean Jacques Rousseau)다.¹⁷⁾

미국이 신생국으로 탄생할 때의 맥락에서 보아 중요한 요점만 간추려 본다. 록크의 정치사상은 먼저 자유와 자산에 대한 개인의 〈자연권〉을 정부가 함부로 범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의 지배권은 인민의 계약에 의하여 인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그 자연권은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

17) Sullivan, *op. cit.*, p. 6; K. Janda, J. M. Berry and J. Goldman, *The Challenge of Democracy: Government in America*, Boston: Houghton Mifflin Co., pp. 71-73. 그리고 록크, 몽테스키외, 루소의 사상에 대한 간략한 해설은 주로 Perry et al., *op. cit.*, 394-396 참조.

처음에는 신정주의적(theocratic)원리로 시작한 것이 중국에는 공리주의와 쉽사리 구별할 수 없는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는다.… 부지런히 일하고, 질서 있는 생활을 영위하며, 정직성과 공정한 거래로 명성을 얻고, 자신의 재산을 쓸모 없는데 거침없이 낭비하지 않으며, 한 번 착수한 일은 끝까지 목적 달성을 하겠다는 결심을 지니는 등, 말하자면 미국의 기본적 전통이 형성될 무렵의 종교는 이런 종류의 윤리로 탈바꿈을 하였다.

2. 사상적 근원

사람에 따라서는 미국적 경험의 사상적, 철학적 근원을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나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러한 먼 뿌리는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 사상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았음을 부인할 필요가 없다. 18세기에 미국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시도함에 있어서 그 정신적 바탕을 구상하고 새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일을 하던 제퍼슨(Thomas Jefferson)이나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같은 당대의 엘리트 지식인과 정치가들은 단연코 계몽주의 사상에 물들었었다. 여러 계몽주의 철학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미국 정치사회 사상에서 두드러진 이름은 록크(John Locke), 몽테스키외(Baron de la Brede et de Montesquieu) 및 루소(Jean Jacques Rousseau)다.¹⁷⁾

미국이 신생국으로 탄생할 때의 맥락에서 보아 중요한 요점만 간추려 본다. 록크의 정치사상은 먼저 자유와 자산에 대한 개인의 〈자연권〉을 정부가 함부로 범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의 지배권은 인민의 계약에 의하여 인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그 자연권은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

17) Sullivan, *op. cit.*, p. 6; K. Janda, J. M. Berry and J. Goldman, *The Challenge of Democracy: Government in America*, Boston: Houghton Mifflin Co., pp. 71-73. 그리고 록크, 몽테스키외, 루소의 사상에 대한 간략한 해설은 주로 Perry et al., *op. cit.*, 394-396 참조.

다. 그러므로, 그러한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침해하는 정부는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상이 유럽과 미국의 혁명 운동에 이론적 뒷받침이 되었다. 몽테스키외는 유명한 〈법의 정신〉의 저자로서, 전제 정치를 반대하고 법에 의한 지배와 비왕정적 권위를 강조함으로써 대의제도를 이념적으로 정당화해 주었으며, 특히 균형 있는 정부, 즉 삼권분립의 이론을 제창하여 미국이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는 단계에서 크게 호응을 받았다.

루소의 사상은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권으로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요구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는 길로서 인간 공동체의 공통된 이해관심을 표상하는 〈일반 의지〉를 부각시켰다. 그는 국가의 법이 이 일반 의지와 합일하기를 원했고, 인민은 공동선에 봉사하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지녔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자유란 일반 의지의 영향 아래 시민이 만든 법을 준수하는 것을 뜻한다. 시민 스스로가 입법 기구를 구성해야지 어떤 개인이나 소수의 집단에게 입법 기능을 맡길 수 없음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일반 의지에 어긋난 순전히 사적인 이익만을 위해 법을 어기는 시민은 정부가 법을 지키도록 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사상은 주로 미국의 정치사회가 형성되는 철학적 배경으로 부각이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개인의 존엄에 관한 이념, 법의 존중에 대한 사상이 뚜렷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종교적 전통과 사상적 배경이 실제 생활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강되기도 하고 변질해 오게 되었는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IV. 역사적 경험의 실제와 전망 : 결론에 대신하여

미국은 처음부터 이민에 의하여 형성된 다민족 국가임을 이미 지적하였다.

다. 그러므로, 그러한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침해하는 정부는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상이 유럽과 미국의 혁명 운동에 이론적 뒷받침이 되었다. 몽테스키외는 유명한 〈법의 정신〉의 저자로서, 전제 정치를 반대하고 법에 의한 지배와 비왕정적 권위를 강조함으로써 대의제도를 이념적으로 정당화해 주었으며, 특히 균형 있는 정부, 즉 삼권분립의 이론을 제창하여 미국이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는 단계에서 크게 호응을 받았다.

루소의 사상은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권으로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요구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는 길로서 인간 공동체의 공통된 이해관심을 표상하는 〈일반 의지〉를 부각시켰다. 그는 국가의 법이 이 일반 의지와 합일하기를 원했고, 인민은 공동선에 봉사하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지녔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자유란 일반 의지의 영향 아래 시민이 만든 법을 준수하는 것을 뜻한다. 시민 스스로가 입법 기구를 구성해야지 어떤 개인이나 소수의 집단에게 입법 기능을 맡길 수 없음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일반 의지에 어긋난 순전히 사적인 이익만을 위해 법을 어기는 시민은 정부가 법을 지키도록 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사상은 주로 미국의 정치사회가 형성되는 철학적 배경으로 부각이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개인의 존엄에 관한 이념, 법의 존중에 대한 사상이 뚜렷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종교적 전통과 사상적 배경이 실제 생활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강되기도 하고 변질해 오게 되었는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IV. 역사적 경험의 실제와 전망 : 결론에 대신하여

미국은 처음부터 이민에 의하여 형성된 다민족 국가임을 이미 지적하였다.

초기 식민지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직면하였던 광활한 대륙의 낮은 환경과 거기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개척해야 하는 어려움을 상기해 보면 그들이 가지고 온 전통을 어떻게 적용하고 변형하여야 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생존의 관건은 질서와 개척이었다. 질서를 위해서는 법에 의한 공동체의 유지가 불가결하였고, 그 법의 정당성은 도덕적 인격과 그를 뒷받침하는 종교에서 찾을 수 밖에 없었다. 한편, 황무지를 개척하고 경제를 일구는데에도 근면과 검약과 〈질서있는 생활〉이 필요 조건이었다. 이것을 그들의 청교도적 종교가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¹⁸⁾

산업 혁명을 경험하면서 서부 개척의 시대가 열릴 때에도 그러한 신개척지에서의 질서와 근면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되었던 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다만, 서부 개척의 상황에서는 때로 폭력이 법에 앞서야 하는 현실이 펼쳐지기도 하였지만, 중국에는 그 문제조차도 법으로 해소하려는 미국인들의 집념은 실로 끈질긴 것이었다. 그리고, 공업화 과정에는 자유 노동이 새로이 형성되면서, 노사관계라는 새로운 요소가 등장하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서도 초기에는 개신교 근로 윤리와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라 일컫는 적자생존의 이념으로 노동자들의 착취를 정당화하려 했다. 칼빈이 가르친 것 처럼 성공한 실업가, 자본가는 신의 구원의 대열에 선택된 부류이고, 노동자와 같이 인생에 실패한 자들은 신의 구원의 대열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므로 그 책임을 자본가가 질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다.¹⁹⁾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종교적 윤리 체계는 세속적인 것에 의

18) L. E. Bauzon, "On American Colonial Hisotry and Independence, pp. 42-75 in *The American Experience, op. cit.*

19) R. Bendix, *Work and Authority in Industry*, New York:Harper, 1956.

하여 대치되어 갔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법치 사회가 생성한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은 완벽한 법치 사회여서 일탈자나 범죄자가 없다는 말은 할 수 없다는 점도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정치의 부패와 조직 범죄 그리고 무기 사용에 의한 일상적인 살인 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평등 사회에서 노예의 문제도 심각한 모순으로 부각되었고, 마침내는 경제적 이해가 엇갈리는 남북 간에 내란을 치르면서 노예 문제를 해소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후, 20세기 후반, 2차세계대전 종료 후의 1950년대의 풍요의 시대를 지나고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미국은 갖가지 문제에 봉착하기 시작하였다. 월남 전쟁은 이러한 문제의 악화에 불을 질렀고, 1970년대 이래 미국의 경제는 계속 어려워져 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개인주의는 극단으로 흘러 개인은 사회 속에서 원자화하고 〈고독한 군중〉(The Lonely Crowd)속의 모래알과 같이 소외를 느끼며 살아 가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적인 삶의 와해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미국의 문제는 다음의 인용구에서 잘 요약하는대로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도 다시 미국적인 전통의 회복과도 연결된다.²⁰⁾

오늘날 우리 나라 [미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유일한 문제들은 아니지만...은 물리적 혹은 제도적 하부구조에 있지 않고, 행동과 도덕의 문제들이다. 장기적으로, 한나라 국민의 성공은 결정적으로 준법성, 근면성, 면학, 검약성 및 어린이들을 진정으로 돌보는 안정된 가족 같은 것들에 달려있다. 이들 다섯 가지 항목 중 네가지 (아마 근면성은 예외일 터이니)에 대해서는 살인율, 학생들의 시험 성적, 이혼율, 혼외출산 등의 객관적 지표만 보아도 지난 수십년 동안에 놀라운, 아니 아주 충격적인 악화 일로를 걸어 오고 있다.

20. J. Rauch, "Caesar's Ghost," *Reason*, (May 1993), p. 56.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는 역시 미국의 전통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시사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해 온 〈자유주의적〉 전통이다. 워싱턴(George Washington), 매디슨(James Madison), 제퍼슨(Thomas Jefferson)과 같은 미국초기의 건국 지도자들의 이상과 실천 속에 담긴 자유주의적 전통을 되살리라는 충고가 나와 있다.²¹⁾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고전적 자유주의자는 인간관계에 대한 자유주의적 이념에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는 자아의 개선, 적극적 능동적 시민정신, 사회적 동료애, 이성 및 관용 등의 덕목과 가치에 헌신한다.··· 오늘의 대답은, 미국의 건국 초기와 마찬가지로, 이념이나 원칙에서만 찾을 수 없고, 그것들이 실지로 미국인의 성격, 능동적 시민정신, 공동체, 그리고 헌법 제도와 과정 속에 실현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필요가 지성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서로 조화롭게 성취될 수 있다.(강조점 필자 추가)

물론, 현재도 미국 사회는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 않게 준법정신과 질서의식의 수준이 높은 국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종교적, 도덕적 전통에 힘입은 바 크다. 뿐만 아니라, 보통 미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일상생활 속에서나 학교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준법 의식 및 질서 생활을 몸에 익히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미국이 갖가지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그 바탕의 문화적 저력은 아직도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세계의 모범국으로 남아 있으려는 의지는 무시할 수 없다.

다만, 문명의 전개 과정을 보면 문명의 진양지가 서양을 떠나 점차 동양권

21) P. H. Weaver "Do-Good Libertarianism," *Reason*, (May 1993), p. 63.

으로 옮겨 오고 있다는 관찰은 조심스럽게 상고해 볼 만하다. 우리는 미국의 준법 정신과 질서 행동의 성격과 연원을 찾아 봄으로써 그러한 배경에 깔린 문화적 뿌리와 바탕에 대한 이해를 얻고자 한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법질서 생활화에 기여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화 전통에 대한 탐구도 필요하다는 각성에 이르게 된다. 앞으로, 21세기의 새로운 문명이 전개할 때 동양권의 우리 나라가 어떤 적극적 기여를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문화적 뿌리에서 얻은 지혜를 새 시대에 되살리는 작업도 시도할 만하기 때문이다. 미국 사람들의 준법 의식과 질서 행동이 결코 우연도 아니고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